

李白詩歌에 있어서의 ‘月’의 心象 分析

—蜀에서의 少年期和 春季의 ‘月’을 中心으로—

郭 利 夫

目 次

- | | |
|-------------|----------------------------|
| I. 序 論 | 2. 春季를 中心으로 한
‘月’의 心象分析 |
| II. 本 論 | |
| 1. 蜀에서의 少年期 | III. 結 論 |

I. 序 論

唐代의 文化를 代表하는 것은 詩이며 또한 唐詩는 燦然한 中國文化의 精華이다.

盛唐時代의 李白(701~762)은 古今無雙의 詩人이며, 그의 詩歌는 判本에 따라 약간의 異同은 있지만, 모두 1,049首, 篇數로는 858篇을 헤아릴 수 있다.¹⁾

李白은 一生을 通해서 ‘月’을 素材로 많은 詩를 읊었으니 ‘月の 詩人’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月’을 詩의 素材로, 때로는 修飾語나 被修飾語로 썼으니 무려 三分之一이나 된다.²⁾

李白의 心境은 매우 複雜多端하여 거의 真相을 分析할 수 없을 程度이다. 그는 豪俠을 좋아하고 張良·荊軻·郭隗 같은 사람에 대하여 懷仰의 情을 表하였으며 道術·神仙을 좋아하여 道士들과도 頻頻히 往來하였고 또한 老子를 사랑하여 閑靜한 生活을 즐기기도 했다. 그의 作風은 濃烈하고, 淡遠하고, 때로는 恬靜하고 雄放하였으며, 결코 限定된 題材와 某種의 風格을 가지고 自身의 作品을 制限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³⁾

李白은 中國文學史上 유명한 好酒家이기에 飲酒하여 月光을 노래한 것이 많아서 분류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詩題나 本文에 主眼點을 두면, 重複을 極少化할 수 있다.

1) 李錫浩, 李白과 道教, 서울, 集文堂, 1981. p. 3.

2) 松浦友久, 李白, 東京, 社會思想社, 1980. p. 64.

3) 車相續, 中國文學史, 上. 서울, 文理社, 1983, p. 389.

그의 詩歌를 對象으로 하여 '月'의 心象 分析을 함에 있어서, 本稿에서는 蜀에서의 少年期和 春季의 '月'의 心象만을 論議코저 한다. 夏·秋·冬季에 있어서의 '月'의 心象 分析은 다른 論文을 필요로 한다.

II. 本 論

1. 蜀에서의 少年期

李白은 武則天(則天武后)의 長安 元년에 태어났다. 그의 貫籍에 대해서는 異說이 紛紛하여 아직까지도 定論이 없다. 最近에는 中央 아세아의 碎葉城을 주장하고 있다.⁴⁾ 李白은 “白隴西布衣”(「與韓荊州書」)라고 自身の 出生地를 隴西로 주장하고있으나, 그는 唐代的 宗正寺⁵⁾로부터 證인을 받지 못했다.

李白的 임종에 입회했던 李陽永은 흠어져 있었던 그의 시를 찾아내고 모아서 직접 서문을 달고 「草堂集」 10권을 엮었는데, 隴西의 成紀人이라고 쓴 것이나, 范傳正이 그를 隴西의 成紀人이라고 墓碑文에 써 준 것은 故人에 대한 예우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李白이 탄생할 때, 그의 어머니가 長庚星(金星)을 꿈 꾸었다고 하여 그의 字를 太白이라 했다. 姉는 月丹이라 불렀고, 李白의 子息은 明月奴와 玻璃라고 했다는 點에서 皎潔透明의 象徴으로서의 '月'의 意義가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的確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⁶⁾

李白的 父親인 李客이 아들에게 白, 딸에게 月丹이라고 作名한 것도 '月'과는 無關하지 않은 것이다.

李客의 '客'은 이름이 아니다. 본래 蜀 사람이 아닌데 그 고장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타향(타관)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李客은 처음부터 '李'라는 姓도 제 姓이 아니다. 蜀에 온 이후에 宗래의 姓을 바꾸어 '李'라고 姓氏를 내세웠던 것이다. 宗래의 姓이 무엇이었던 지도 모른다.⁷⁾

李白的 排行名은 '李十二'라고 불리운 것으로 보아서 그의 형제들은 매우 많은 것 같다. 그의 가족이 中央 아세아 碎葉城에서 蜀으로 이사 올 때는 大家族으로, 長途의 蜀에 왔다는 것은, 李客이 부유한 상인이었음을 말한다. 李客은 蜀에서 그에게 여행하게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했으며, 任俠하고 義를 重히 여기고, 同情心있는 人間으로 키우고자 했다. 그러한 점에서도 李客은 부유한 상인이었음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교양도 있었기에 子息의 天分(天質)을 發展시킬 수 있었다.⁸⁾

李白은 “五歲誦六甲, 十歲觀百家”(「上安州襄長史書」), “十五觀奇書”(「贈張相鎬 其二」), “我小時大

4) 郭沫若, 李白與杜甫, 北京, 人民文學社, 1972. p. 5.

5) 皇帝親族의 일을 擔當하는 官署인데 秦代부터 「宗正」이라고 하여 설치 했고 晉代에 와서 「宗正寺」로 개칭되었다.

6) 松浦友久, 李白研究, 東京, 三省堂, 1976年, p. 54.

7) 高島俊男, 李白과 杜甫, 東京, 評論社, 1972, pp. 33~34.

8) 郭沫若, 李白與杜甫, 前掲書, p. 9.

人令誦子虛賦”(「秋於敬亭送侄 嵩游廬山序」)라고 말하고 있어, 少年時節에 매우 열심히 공부했음을 엿볼 수 있다. 子虛賦는 司馬相如의 名作이고, 百家는 온갖 古典을 말하는 것이니, 그 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였다는 것은, 적극적인 意味로는 知識이 풍부해졌으며, 眼界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소극적인 意味로는 儒家思想의 束縛에서 脫皮할 수 있었다. 이러한 點에 있어서 詩人으로서의 詩歌를 創作하는데 重要的 作用을 하고 低力이 되었던 것이다.⁹⁾

李白은 여러 方面에 興味를 가졌으니 讀書뿐만 아니라 劍術과 武藝를 매우 좋아했다고 “十五好劍術”(「上韓荊州書」) 말하고 있으며 또한 隱遁生活에도 興趣를 가졌다. 그는 岷山에 隱居하며 道士들과 어울렸다. 儒敎思想의 遊俠과 道敎思想의 隱居는 相馳되는 것이나, 李白은 두개의 思想으로 一生을 살아가는 契機가 되었고, 그 때 胚胎된 것이다.

訪戴天山道士不遇

犬中水聲中，桃花帶雨濃。
樹深時見鹿，溪午不聞鐘。
野竹分青靄，飛天掛碧峯。
無人知所去，愁倚兩三松。

이 作品은 그의 最初의 詩인데, 淸純한 人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1句와 4句에서 音聲의 聽覺의 面을, 2句와 3句는 視覺의 感覺의 面을 表現하여 相互 交感시키고 있다. 5句는 近景, 6句는 遠景을 描寫하여 相互 交叉시켜 戴天山의 深奧함을 表示하고 있다. 3句와 4句는 山中의 遠景을, 4句와 6句는 한 쪽에서 본 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1句부터 6句까지는 山의 情景를 感傷의 憂愁로 表現하고 있다. 마지막 7句와 8句에서야 靜中動인 自己 自身의 憂愁에 찬 心境을 意味論의 內實으로 내보이고 있으니 竹·松의 風格과 그의 人格이다.

春感詩

茫茫南與北，道直事難諧。
榆莢錢生樹，楊花玉糝街。
塵榮遊子面，蝶弄美人鈿。
却憶青山上，雲門掩竹齋。

이 詩는 當詩 高官이며 文壇의 巨物인 蘇頲으로부터 “天才英麗，……風力未成，…廣之以學，…”(「上安州裴長史書」)라는 대단한 칭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獎勵와 指導는 李白의 文學創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李白은 蜀의 山水名勝地를 遊覽하는 가운데, 그 壯麗하고 優美한 自然環境에 心醉되었으니, 詩人의 胸襟은 더욱 새로와 졌다. 그가 見聞한 바를 題才로 하여 쓴 作品은 대부분 抒情詩이다. 또한 詩人으로서의 基本的인 內實을 期한 作品들로 「登阿眉山」, 「登金城山化樓」, 「阿眉山月歌」 등이다.

9) 周祖謙, 隋唐五代文學史, 福建人民出版社. 1958. p. 61.

그러나 그의 特殊한 諷諫精神 이 짙게 풍기는 作品들도 있으니, 「白頭吟」, 「妾薄命」이다. 이러한 樂府의 題名으로써, 漢의 武帝가 阿嬌(陳皇后의 幼名)를 사랑했던 옛 일을 가지고 현재의 일로 대치하여 比喻의 효과를 얻고자 했다.

이처럼 李白은 表現하는 方法이 솔직하거나, 직접적인 서술이 아닌 修辭學的인 技巧을 가졌다. 그의 「古風五十九首 其二」에서 漢 武帝로부터 질투심이 많다는 이유로 사랑을 잃고 宮廷에서 쫓겨난 陳皇后가 司馬相如로 하여금 「長門賦」를 짓도록 하여, 이것을 武帝에게 獻上하니, 武帝의 마음을 感動케 하여 다시 寵愛를 받게 된다. 李白은 武帝를 玄宗으로, 陳皇后를 子息이 없다고 廢位된 王皇后로 대치하여, 玄宗의 마음을 感動시키고자 한다. 즉 玄宗 自身의 本心에 依한 決定이라기 보다는 宮廷內의 奸臣輩의 所行으로 基因한 것이므로 더욱 慨嘆한다. 마지막 兩句를 除外한 1句부터 12句는 전부 比喻의 형식이다. 用事는 옛 일로 현재의 일을 대치하는 수사법이다.¹⁰⁾

이와같이 李白의 詩歌는 傳統의인 詩經精神에서의 諷諫精神이 여러곳에 보인다. 때로는 世上事를 좋게하려는 倫理觀念에 立脚한, 所謂 功利 혹은 實利를 基底로한 作品이다. 李白의 本性은 現實主義로서 儒敎의인 正義觀을 널리 普及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다.

蜀에서 李白은 自身의 意象과 象徴으로서 '月'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峨眉山月」이다. 그의 浪漫的인 氣質도 '月'으로써 形成된 것이고, 독특한 예술의 新境地를 開拓했다고 볼 수 있으니 '月'은 理想의 象徴이었다. 동시에 어두운 밤 하늘을 밝혀 주듯, 현실을 아름답게 밝혀 줄 수 있는 詩의 象徴이기도 하다.

峨眉山月歌

峨眉山月半輪秋, 影八平羌江水流.
夜發清溪向三峽, 思君不見下渝州.

이 詩는 물론 가을 아미산의 '月'을 노래한 것이지만, 李白이 蜀에 있을 때의 特殊한 意味를 갖는 '月'이다. 峨峯과 眉峯은 峨眉山인데, 美人의 形容으로도 쓰고 있다. '月'과 연관이 있는 眉·平·清·君字를 썼으며, 불과 28字밖에 안되는 七言絶句 속에 固有名詞로 11字를 사용하여 5개의 地名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詩韻이나 心象을 손상함이 없이 完全하게 表現해 냈으니 서술적인 技巧은 훌륭하다. 또한 三峽에는 '明月峽'이 있다는 것을 연상하면 운치는 倍加된다.¹¹⁾

阿眉山的 '月'은 李白이 出蜀 이후에도 그 影象은 玲瓏하게 새겨져 있었고, 特히 失意時에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峨眉山月歌送蜀僧晏入中京

我在巴東三峽時, 西看明月憶峨眉.
月出峨眉照滄海, 與中萬里長相隨.

10) 中國人文科學研究會, 中國人文科學, 創刊號, 梁會錫 「用事考」 p. 207.

11) 大野實之助, 李太白詩歌全解, 東京, 早大出版部, 1981. p. 139.

黃鶴樓前明華月，此中忽見峨眉客。
 峨眉山月還送客，風吹西到長安陌。
 長安大道橫九天，峨眉山月照秦川。
 黃金獅子乘高座，白玉麈尾談重玄。
 我似浮雲滯吳越，君逢聖主遊丹闕。
 一振高名滿帝都，歸時還弄峨眉月。

李白은 서쪽의 '月'만 보면 아미산의 '月'인가 하여 蜀의 少年時節과 父母兄弟를 그리고, 功業을 이루지 못한 애처로운 심정을 나타냈다. 그의 思想이나 思考의 形態를 엿볼 수 있으니 儒·佛·道敎의 三敎가 모두 共有하고 있는 點이다. 儒敎적인 杜甫도 道·佛敎를 題材로, 佛敎적인 王維도 道敎적인 作品이 있다는 것은, 當時의 詩人이 思想과의 關係는 一般적인 傾向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李白은 그 度數가 심하다. 그의 出仕의 욕구에 찬 人間像을 나타내고 있지만, 經世濟民을 첫째의 目標로 하는 儒敎적인 生活信條라 하겠다.

2. 春季를 中心으로 한 '月'의 心象 分析

李白은 自然을 즐거움에 있어 凡人의 想像를 超越하여, 常例로 볼 수 있는 '月'을 永遠化하였다. 春風과 明月과 獨酌은 가장 詩仙다운 面貌를 보여주는 點이다. 그의 「贈內」에서 일년 삼백 예순날 매일같이 술에 취했다고 했으며, 婦人에게 不平·不滿을 吐露함으로써 자신의 理想과 家庭生活의 倦怠感을 잊고자 한다.

詩聖 杜甫는 李白이 長安에서 放逐된 뒤, 洛陽에서 우연히 만나서 約 6개월간 交遊했었다. 交遊 關係에는 담백한 李白은 杜甫에 關해 單 二首가 있지만, 杜甫는 李白과의 友情 혹은 師事했기에 李白에 대해서 15首나 된다.¹²⁾ 杜甫의 “白也詩無敵，飄然思不群”(「春日憶李白」), “李白一斗詩百篇，長安市上酒家眠，天子呼來不上船，自稱臣是酒中仙”(「飲中八仙歌」)라고 했으니, 李白의 性格과 好酒와 交遊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이 처럼 飲酒는 李白의 日常生活의 한 부분이었고, 作詩하기 위한 도구 있었을는지 모른다. 봄 날에 술 마시는 뜻을 갈한 五言古詩를 보자.

春日醉起言志

處世若大夢，胡爲勞其生。
 所以終日醉，頽然臥前楹。
 覺來盼庭前，一鳥花間鳴。
 借問此何時，春風語流鶯。
 感之欲嘆息，對酒還字傾。
 浩歌待明月，曲盡已忘情。

12) 松浦友久, 李白研究, 前掲書, p. 118.

1~4句에서는 人生은 큰 꿈과 같은 것인데, 世上의 여러가지 일에 悲哀와 비탄에 젖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필요성이 없다. 곧 飲酒는 清涼劑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莊子가 “昔者莊周夢爲蝴蝶”, “不知周之蒙爲浩蝶與, 姑蝶之夢爲周與,”(「齊物論」)라고 말한 理致와 같다.

5~8句는 “借問”이라는 中文學에서의 自問自答 형식을 사용하여 “春風語鶯”이라고 간접화법으로 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9~12句는 한숨을 쉬어 탄식하는 것보다는, 술을 마심으로써 한숨도 함께 마시는 셈이 된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달이 뜨기를 기다리지만, 노래가 끝났을 때는, 왜 노래를 불렀는지를 자기 자신도 모르겠다고 하여, 內心の 衝動을 管制하지 못함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月下獨酌 四首其一

花間一壺酒	활짝핀 꽃나무 사이에 술단지 놓고
獨酌無相親	짝 없이 외로히 술잔 드네
舉杯邀明月	술 잔 속에 밝은 달님 맞이하니
對影成三人	달님과 나와 그림자 셋이되네.
月既不解飲	달님은 본래 술 못마시고
影徒隨我身	그림자는 내 몸 따라 다니지만
暫伴月將影	잠시동안 달과 그림자 동반하고
行樂須及春	모름지기 봄철 한때나마 즐기거
我歌月徘徊	내가 노래 하면 달님은 건성 떠돌고
我舞影零亂	내가 춤을 추면 그림자 흔들리네.
醒時同交歡	술을 깨고서는 함께 어울려 놀고
醉後各分散	술이 취해서는 각각 흩어져 버리네.
永結無情遊	영원히 담담한 교유 맺고져
相期邀雲漢	아득한 은하에서 다시 서로 만나리

中國文學史上 李白과 쌍벽을 이루는 好酒家가 있으니 晋代의 陶潛(淵明)이다. 그는 菊花를 사랑하였고, 隱士로서 門 앞에 五柳를 심고, 스스로 五柳先生이라 하였다.

그림자를 自己의 分身으로 한 發想은 中國 古代로부터 있었지만, 特히 陶淵明의 「形影神」이라는 詩에서는 神을 더해서, 三者가 問答하는 哲學的인 詩가 있다. 形은 보통 道家들이 生命의 不滅과 肉體의 不死에 대한 希望을 나타내며, 影은 儒家의 위대한 행동과 영원한 名聲을 통한 不朽에 도달하려는 생각을 대표하지만, 神은 詩人 자신의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이 作品에서 “對影成三人”이라고 한 것은 陶潛의 手法과 같으며, 그의 “明朝有意抱琴來”(「山中興幽人對酌」)도 아마 그이에게서 基因한 것이지, 創意的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第一首에서는 어두운 밤 하늘에서 밝게 비치는 ‘月’은, 한창인 봄철에 地上에 있는 나를 비춰주어 그림자까지 만들어 주니 외로움을 달래 주는 것 같다. 술이 덜 취해서 정기가 있을 때는 ‘月’과 그림자와 자기가 서로 어울리는 듯 하지만, 술이 취했을 때는 자기의 소재를 忘却해 버린다. 永久히 自己의 私利私慾과 好惡의 감정을 버리고 함께 놀고 싶은데, 現實世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銀下의 세계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다. ‘月’과 그림자는 無情의 自然物이지만, 사람의 有情의 人

間이어서 交際에는 感情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세상만사의 잡다한 번뇌에서 脫俗코자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서 술을 마시면서 번뇌를 잊고서 꽃속에서 '月'만을 쳐다보고 싶다고, 자신의 솔직한 내심을 표출했다.

十句의 零亂은 雙聲語로 玲瓏한 恍惚境에 陶醉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月下獨酌 其四

窮愁千萬端	궁핍한 우수는 천 갈레 만 갈레
美酒三百杯	맛있는 술은 삼백잔이나 들게
愁多酒雖少	수심은 많고 술은 적으나
酒傾愁不來	술잔 드니 수심은 사그라져
所以知酒聖	술이 성인이라는 이유를 알겠네
酒酣心自閑	술이 지나하니 마음은 저절로 평온해져
解藥臥首陽	곡식을 마다하고 수양산에 들어간 백이 숙제나
曠空飢顏回	쌀뭉치가 비어 배고픈 안회나
當代不樂飲	당대에 술 마시는 즐거움 모르고서
虛名安用哉	허명은 후세에 남겨 무엇하리
蟠螭即金液	계 가제 안주는 신선의 선약
糟丘是蓬萊	쌀인 술찌꺼기 봉래산 같고
且須飲美酒	이젠 모름지기 맛있는 술이나 마셔
乘月醉高台	달과 함께 높은 누대에서 취하리.

人生行路에는 우수가 많지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술뿐이다. 신선의 세계 蓬萊에서 살며, 仙藥 金液을 복용하며 不老長生하고 싶지만 그것은 단지 이상에 불과한 것이다. 丹液의 幻想에서 覺醒하고, 現實의 世界에서는 오직 '月'만이 나의 心情을 이해해 줄 것이다.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 때문에 우수에 잠길 필요없이 술이나 마시자 우수의 감정이 안 일어난다면 현실의 세계가 곧 極樂이다. 현실세계에서 우수의 감정을 제외하는 방법은 술만이 구체적인 것이다. 술마시고 아름다운 月光을 함께하여 高堂에 있으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好時節일수록 더욱 愁心이 쌓이고, 平凡치 않은 自身의 內面의 세계를 '月'로써 表白시키는 기교를 가졌다. 어둠의 세계를 밝혀주는 자연계의 '月'과 현실세계의 自身과를 비교하며 거침없이 서술한 솜씨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李白的 內面의 世界가 平穩치 못함을 다음 詩에서 보자.

將進酒

君不見黃河之水天上來,
 奔流到海不復回。
 君不見高堂明鏡悲白髮,
 朝如青絲暮成雪。
 人生得意須盡歡,
 莫使金樽空對月。

將進酒는 樂府題名으로, 漢代 軍樂의 하나로써, 後世 사람들이 그 題名과 內容을 빌어서 作品을 썼지만, 스케일이 크며 시원하게 내려 쓴 李白의 솜씨에 비견할 詩人은 별로 없다. 이 飲酒詩로 自身의 人生觀을 내보였으니, 宇宙의 永遠함에 比하면 人生은 刹那·瞬間에 不過하다. 이 須 와 같은 人生 一代를 잘 사는 방법은 오직 술 마시고 世俗의 속된 일에 구애 받지 않은 삶이니, 飲酒의 效用은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크다고 하겠다. ‘人生得意須盡歡’은 反語的인 表現이며, ‘莫使金樽空對月’은 無意味한 月光이 아니다. 宇宙의 日月은 물론 太陽과 달님이지만, 地上에서의 日月은 皇帝와 李白 自身이라는 것을 暗示하고 있다. 큰 포부를 가지고 방랑하는 心境을 잘 나타냈다. 無限한 ‘月’과 有限한 ‘月’과를 對峙시켜 비유하고 있다.

李白의 想象力과 ‘月’의 時空世界를 感知할 수 있다.

自遣

對酒不覺暝，落花盈我衣。
醉起步溪月，鳥還人亦稀。

이 詩에서, 李白은 自己 自身의 憂愁의 情을 解消시키려고 飲酒의 當爲性을 皮력하면서, 봄철의 自然環境을 背景으로 하고 있다. 술 뿐만 아니라, 山·水·花·鳥·風·月과 같은 自然物에 接해야, 無爲自然의 道에 立脚한 人間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現實世界에서 詩人으로서 풍부한 詩想에 잠길 수 있어 作詩하게 된다. 李白의 浪漫主義의 人生哲學을 보는 듯 하여 多情多感하다. 感情과 思考力이 없는 自然物들은 自然의 攝理데로 움직이고 있지만, 憂愁에 가득찬 作者 自身은 世俗의 人間과는 交際하지 않고 다만 시냇물에 비친 ‘月’을 보면서 自然人이 되고저 한다. ‘溪月’에서 ‘溪’는 곧 ‘水’이며 老子的 象徴이니 ‘月’은 李白에게도 마찬가지로의 象徴이 되겠다.

春日獨酌

東風扇淑氣，水木榮春暉。
白日照綠草，落花散且飛。
孤雲還空山，衆鳥各已歸。
彼物皆有託，五生獨無依。
對此石上月，長醉歌芳菲。

이 詩에서는 自然物에 對하여 銳敏한 感受性과 放浪家의 氣質을 赤裸裸하게, 繪畫的으로 描寫하여 表現하고 있다. ‘白日’은 思考力이 없는 自然物에 ‘照’하여 ‘有託’케 하고 있는데, 思考力이 있는 自身에게도 ‘分照’하여 ‘有依’케 해주십시오 하는 所望의 詩이다.

여기서 ‘白日’은 직역을 하면 한낮의 太陽이지만, 意역은 皇帝를 지칭하고 있다. 그는 “海水渤橋，人罹鯨 . ……遷白日於秦西 . ……君收白圭。”(「萬憤詞 投魏郎中」)이라 하여, 安史의 亂으로 困難에 唐皇室이 處해 있다. 皇帝(紅)께서는 蜀에 避難을 가셨다. 상감께서는 ‘白圭’같은 저를 삼가 救해 주십시오. 또 皇帝를 ‘日’로 쓴 경우 ‘西人長安到一邊’(「永王東巡歌 其十一首」), “日落群峰西”

(「春日遊羅敷潭」)라고 하여, 安史의 亂을 평정하고 나서 西쪽 長安에 入城하여 皇帝 곁에서 보필하고 저 하는 得意에 찬 時期의 것이고, 해가 서산의 봉우리를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하여 근심스러운 표정의 失意에 찬 時期의 것이다.

이처럼 李白은 의미 깊게 '日'을 쓰고 있다.

把酒問月

青天有月來幾時	푸른 하늘엔 언제부터 달이 있었는지
我今停杯一問之	난 잠시 술잔 놓고 한마디 물겠네
人攀明月不可得	사람들은 명월에 오르지 못하지만
月行却與人相隨	달빛은 사람을 어디든 쫓아가네
皎如飛鏡臨丹闕	맑고 밝기는 날으는 거울인양 선궁에 스며든다.
綠煙滅盡清輝發	밤안개 없어지니 더욱 빛나네
但見宵從海上來	간밤에 바다위로 떠오른 그대 보았건만
寧知曉向雲間沒	날밝자 구름 속에 묻혀 간곳 몰라라
白兔擣藥秋復春	흰토끼 봄 가을에 약 절구 찧고
嫦娥孤棲與誰隣	상아는 벗할 님 아무도 없네
今人不見古時月	지금 사람은 옛 달 못보았으나
今月曾經照古人	오늘 달은 옛 사람 다 보았으니
古人今人若流水	옛 사람 지금 사람 흐르는 물 같은데
共看明月皆如此	같이 보는 밝은 달은 이와 같으니
唯願當歌對酒眠	오직 바라네 술잔 들고 노래 하고자 하니
月光長照金樽裏	달빛이여 황금의 술잔 속까지 오래 비치소서

李白에게는 飲酒와 月光과는 없어서는 안될 不可分の 관계이다. 그는 現實主義의 人間이기에 現實世界에서 높은 地位를 얻어서 '安社稷', '濟蒼生'의 儒敎의인 正義를 기준으로한 정치에 參與코져 했으나,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았다. 現實的 이상의 큰 포부를 갖고있는 만큼 정신적인 內面的 갈등은 크게 진동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李白의 상상력은 아득히 먼 大空을 飛翔한다. 밤 하늘의 깊고 푸르름을 '青天'이라 부르는 것은 이미 六朝時代의 詩에도 보이지만 李白의 表現은 더욱 마음에 들었다.

또한 그는 "百年三萬六千日, 一日須傾三百杯", "咸陽市中嘆黃犬, 何如月下傾金罍", "心亦不能爲之涯, 青風郎月不用一傳買", (「襄陽歌」)라고 하여 痛飲狂醉했다. 淸風과 郎月은 同格이며, 冷笑主義者인 것 같으면서도, 自身的 浩然之氣를 暗示하고 있다.

李白이 상징하는 '月'의 心象을 다음 樂府詩를 통해서 알아 보자.

古朗月行

小時不識月	어려서 나는 달을 몰랐기에
呼作白玉盤	흰 구슬 쟁반이라고 불렀오
又疑瑤台鏡	또 구슬 박은 경매가
飛在白雲端	푸른 구름 높이 걸려 있는 줄 알았오

仙人垂兩足 仙人이 양 다리를 내려 놓은듯
 桂樹作團團 계수나무가 둥글게 만들어 놓았는지
 白兔搗藥成 하얀 토끼가 약을 빻아 놓은 것은
 問言與誰餐 누구에게 먹일 것인지 묻고 싶었어
 蟾蜍蝕圓影 나쁜 두꺼비가 둥근 빛을 먹어 버렸오
 大明夜已殘 때문에 밤마다 없어져 버리겠지
 羿昔落九鳥 옛 활의 명수 가 아홉마리 까마귀들을 떨어 뜨렸오
 天人淸且安 하늘과 사람이 밝음과 편안함을 회복했오
 陰精此倫惑 精氣를 잃고 못 볼 정도로 빠졌오
 憂來其如何 이 걱정들을 어떻게 할꼬
 悽愴摧心肝 가없고 슬픈 마음은 간장을 녹여주네.

이 詩에 대해, 楊齊賢은 六朝 宋의 「朗月行」이라고 題目을 붙인 樂府가 있는데, 李白은 그의 樂府에 계속해서 지은 것이 「古朗月行」이라고 했다.¹³⁾ 鮑照의 「朗月行」은 宮庭에서 奉仕하는 美女의 生活態度를 썼는데, 그의 主眼點은 唯美主義的인 것이었다. 李白의 「朗月行」은 叙情的 要素가 主調를 이룬다. 李白의 作品은 五言 十六句인데, 前半 八句와 後半 八句로 兩分할 수 있다. 前半 八句는 ‘月’을 끌어들이어 李白 自身의 認識으로부터 始作 하지만, 가끔 ‘月’의 전설적인 面도 서술하고 있다. 後半에서는 전통적인 面도 있지만 ‘月’을 陰精으로 보는 見解를 時事와 관련하여, 李白 自身의 感懷를 서술했다. 國家가 混亂의 위기에 처해 있는 原因은 宮庭內에서 權力을 恣용하는 女性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으며, 세상이 混亂에 빠질 前兆가 있다는 것을 이 樂府를 通해서 諷刺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安祿山의 反亂을 미리 예상하고, 그 禍亂의 原因은 楊貴妃 일파와 그 가족들 때문이라고 想像했다.

李白은 宮庭에서 翰林供奉으로 있을 때 「靑評調詞」三首를 지었다. 그는 그 詩 때문에 실각했다는 俗說이 있으며, 天寶 3年(744) 봄 3월에 장안에서 추방되었다. 추방된 李白은 황하로 내려가 洛陽에서 杜甫와 우연히 만났으며 또한 高適과 함께 梁宋 땅에서 놀았으며 山東에서는 道錄을 전해 받았고, 이듬해 가을 魯郡의 石門에서 杜甫와 헤어졌다. 李白은 또 各地를 近 十年동안 漂泊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古朗月行」은 天寶 12年(753)에 쓴 詩인데, 2년 후에 安史의 亂을 예측했으니 政治的인 感覺도 비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를 풍자하는 詩가 逐臣으로서 定處없이 떠돌아 다니는 동안에 썼기에 망정이지, 長安에서 썼더라면 楊貴妃 일파나 奸臣들에 의해서 困辱을 당했을 지도 모른다.

中國文學에는 전통적으로 “比”(比喩), “興”(比喩와 直接描寫)이라는 技法이 있다. 李白은 「古朗月行」에서 처럼 “比”, “興”과 作品解析에 있어서의 假相과 實相같은 詩를 짓는데 익숙해 있다.¹⁴⁾

李白은 다양한 素材와 詩型을 通해서 感動의 振幅을 크게 하는 詩的인 世界를 構成했으니, 그의 詩題만 보고서도 內容을 알지 못하며, 內容을 理解하더라도 詩의 참意味를 모르는 경우가 특히 많다.

13) 大野實之助, 李太白詩歌全解, 前掲書, p. 622.

14) 松浦友久, 李白, 前掲書, p. 75.

蘇台覽古 - 옛 姑蘇台 보며 -

舊苑荒台楊柳新 옛 정원 누대에 버들 잎이 새롭고
 菱歌淸唱不勝春 마름 따는 맑은 노래 소리 옛 건만 못하고
 只今惟有西江月 지금은 오직 서강의 달 빛만 있어
 曾照吳王宮裏人 전에는 뭇나라 궁중의 사람들 비쳤겠지

이 詩는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吳越同舟」와 「臥薪嘗膽」이란 故事成語와 관련이 있는 詩이다. 그런데 언제 이 作品이 쓰여 졌는가에 따라서 意味는 크게 틀릴 수 있다. 要是 李白이 翰林供奉의 時期이냐, 아니면 逐臣인 時期이냐에 따라서, 그의 內心의 思考力의 차이와 시대적 배경의 차이가 생긴다.

李白은 그의 文學的인 眼目을 바탕으로 하여, 用事라는 言語 構造를 통해, 原型으로 존재하는 故事를 환치하여 비유로 승화시켰다. 곧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인용의 단계를 벗어나 創作的인 側面을 갖는다.¹⁵⁾

紀元前 五世紀 初에, 春秋時代의 吳王 夫差는 그의 父親 闔閭가 越王 句踐과 싸움에 저서 敗走하는 도중에 죽었다. 夫差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매일 밤마다 薪에서 잠을 자며(臥薪) 父親의 怨恨을 갚고자 했다. 夫差의 군은 복수의 念으로 단련했기에 句踐과의 싸움에 이겼고, 夫差는 勝者의 襟度로 句踐을 용서했다. 句踐은 夫差에게 복수코저 恒常 쓰디 쓴 쓸개를 맛보며(嘗膽) 복수의 결심을 새로이 했으며 미인 西施를 獻上하였다. 吳王 夫差는 西施의 아름다움에 耽溺하여, 姑蘇台 위에 화려한 宮殿을 修築하여 歡樂의 나날을 보냈다. 二十年 後에는 越王 句踐의 반격을 받고서, 吳王 夫差는 姑蘇台에서 自殺했다. 蘇台는 姑蘇台의 省略한 表現이다. “吳王宮裏人”은 西施를 지칭하는 것이다.

李白은 翰林院의 翰林供奉이지만, 身分상으로는 布衣에 불과했기에, 그는 蘇台의 遺跡을 보면서 달을 素材로 해서 國家의 興亡盛衰와 人間의 榮枯盛衰를 懷古하여 作品을 썼다.

1句의 ‘舊苑荒台楊柳新’에서 ‘舊苑荒台’는 姑蘇台의 遺跡을 말하고 있다. ‘楊柳新’은 옛 버들과 수양 버들이 새 싹이 돋아나서 잎이 푸른 것보다는 楊貴妃의 일과가 新進세력으로 擡頭하는 것을 表現하고 있다. 舊苑도 宮中の 歌舞團인 梨園을 의미하는 것이다.

‘苑’字와 ‘園’字는 다같이 발음이 ‘yuan’이다. ‘荒台’는 玄宗이 初期에는 開元의 治라고 불릴만큼 정력적이었지만, 楊貴妃에 貪淫하고 나서는 名君에서 暗君으로 변해 버렸으므로, 정치적으로 荒蕪地의 高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것이다. 또한 玄宗은 연령적으로 老年期에 있었다. 宰相인 李林甫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口密腹劍이라는 評을 받았었고, 음험한 책략가였다. 또한 그는 節度使에 異民族 出身의 武將을 썼다.

玄宗은 점점 정치에 싫증을 느낀 만큼 楊貴妃에게 貪淫했으며, 宰相인 李林甫가 좌지우지했다.

2句의 ‘菱歌淸唱’은 玄宗과 楊貴妃의 關係를 빗대어 불렀거나, 젊은 청년들이 邊方으로 出征하는 것을 빗대어 불렀을지도 모른다.

15) 中國人文科學, 前掲書, p. 211.

3句의 ‘西江月’은 楊貴妃가 蜀의 司戶參軍, 楊玄淡의 딸이었기 때문에 西라고 썼으며 江은 楊子江을 말한 것이다.

4句의 ‘吳王宮裏人’은 西施를 말하고 있는데, 그녀는 春秋時代 越의 美人으로, 吳나라를 亡하게 한 女性이다. 李白은 春秋時代의 西施와 玄宗의 寵妃를 對應시켰다.

Ⅲ. 結 論

汗牛充棟이란 말처럼 李白의 詩에서는 ‘月’을 主題나 혹은 素材로 읊었지만 素材로 多樣하게 썼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는 ‘月’ 그 자체를 主題로 쓴 것은 없겠다.¹⁶⁾

李白은 蜀에서 少年期로부터 當塗에서 腐脇病으로 죽을 때까지,¹⁷⁾ ‘月’을 읊었으니, 그의 一生을 두고서 ‘月’을 사랑했고, 李白의 詩는 한 편의 ‘月의 詩’라고 할 수 있겠다.

李白의 內心の 核은 ‘月’이었기 때문에 縱橫無礙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全生涯동안 漫遊를 했으니 見聞과 체험과 그의 天才性이 三位一體가 되어서, 李白만이 表現하고 表白할 수 있는 ‘月’을 새롭게 창조하였다.

李白은 또 一生동안 得意時이든, 失意時든 飲酒를 하여서 詩歌를 읊었으니, 好酒家로서도 詩人만큼 유명하다. 特히 春季의 詩歌는 더욱 飲酒의 詩가 많으니 內容上으로 區別하기 힘든 곳도 있다. 그러나 飲酒는 作詩키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飲酒의 詩를 대부분 李白의 神仙思想으로 보고서, 道教的 風流詩로 보려는 見解는 再考할 점이다.

中國의 詩人 가운데서 ‘月’을 읊지 않은 詩人이 없을 정도로 많지만, 李白처럼 ‘月’의 心象이 生動的이고 象徴的이고 哲學的이고 透明성을 갖는 詩는 별로 없다. 또한 時間·空間에의 擴大指向성은 二十世紀 현재까지 설득력과 공명감을 갖게 하는 作品은 많지 않다. 그의 ‘月’을 難解하고 難澁한 것은, 自然界의 事物로 여기지 않고 비유법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李白은 그의 性格처럼 진폭이 큰 기개와 ‘月’의 心象과 一切感을 보이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李白의 少年期는 神童으로 勉學에 힘 썼고, 「阿眉山月」과 같은 口語體의 作品을 썼다. 그래서 出蜀以後의 漫遊로 困한 作品들의 대부분은 用事에 依한 비유법을 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春季의 ‘月’의 心象은 弱한 者를 爲하고, 理想에의 追求를 갈망하고, 季節의 感覺으로 激動하는 李白 自身の 상징이라 하겠다.

16) 松浦友久, 李白, 前掲書, p. 65.

17) 郭沫若, 前掲書, p. 148. 李白與杜甫

Summary

An Analytic Study of the Lunar Image in Le-Po's Poetry

Kwak Ih-boo

Li-Po(701-762) spent his boyhood in Ssu-Chuan. (四川).

He endeavoured to enrich his literary vision by hard study and traveling around in many districts of Ssu-Chuan. (四川).

Main subjects of his poetry were concerned with the moon, and so poems concerning the moon amount to about a third of his works (about 1000 in number). The moon can be said to act as a symbol of his alienation from the world.

His literature is so large in its amount that this paper is to discuss only his works produced in the springtime during his boyhood in Ssu-Chuan. (四川).

His favorite source of literary inspiration other than the moon is drinking. Therefore, one of the aims of the this study is to find and re-examine the reason, he loved the moon and drinking so that we may come to the full appreciation of his poetry.